상임연구원 현지 방문기

싱가포르 : 동남아연구에로의 관문

황재호*

여행은 언제나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이프러스(Cyprus)라는 지중해의 작은 도서(島嶼)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다.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국가였지만 여행이후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사이프러스는 북쪽의 터키령과 남쪽의 그리스령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수도인 니코시아의 가장 번화한 시내가 둘로 쪼개어져있어 그 분단의 상징성이 더했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정세변화로 인해 남과 북의 사이프러스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가입하기 위해 재통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후 필자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이프러스 관련 소식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는 습관이 생겼고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곤 하였다.

필자가 이 글을 쓰기 얼마 전 여행을 한 곳은 동남아시아의 심장에 위치한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의 방문은 대부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한 짧은 체류였기 때문에 제대로 싱가포르의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학회참석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가능한 많은 곳을 방문하고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터였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제3차 국제아시아학자학술회의(The Third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 ICAS3)에 필자는 같은 연구소 일행(이한우, 전제성, 황인원, 이요한 박사)과 함께 참석하였다.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 지역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1000여 명의 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아시아관련 인문사회과학의 주요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상세한 프로그램과 발표논문 목록 및 요약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as.nus.edu.sg/icas3).

비록 이번 회의는 인문과학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회의여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동북아지역 국내정치나 외교안보 논문은 많지 않아 조금은 실망이었지만 이 지역 학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으며 이번 학회를 통해 여러 외국학자들을 교분을 나눈 것은 분명 적지 않은 소득이었다. 덴마크 오러스대학교의 오드가드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부소장 한 펑 교수, 일본의 야마구치대학교의 히데다카 요시마츠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알란 청 교수와 스웨덴 룬

드대학교의 시저 예페스 교수 등을 만났다. 또 이전부터 그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의 동아연구소(East Asian Institute)와 동남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를 방문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차이나타운과 싱가포르의 도심내의 여러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필자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의 동인도회사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착지로 출발하여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고 1959년 자치정부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외교정책은 여전히 영국의 결정에 따랐던 반독립상태의 국가였다. 1965년 국가가 독립한 이후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민족사회로 구성된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여느 제3세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전형적인 후진국가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정도의 크기의 정말 작은 이 도시 국가가 이제는 세계 4대 주요 외환시장의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앞서나가는 나라,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투명성이 보장된 나라에 손꼽히는 국가가 되었다. 또 최근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 소개된 것처럼, 주택, 의료,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나라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강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규모의 이점이다. 코스트(cost)와 시간의 절약으로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하다. 엘리트중심 소수지도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과정은 이미 중국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싱가포르의 강점은 선견지명적 정책수립과 중단없는 전폭적인 정책추진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1960년대부터 세계화에 눈을 떴다.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세제혜택과 기타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였고, 이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장점은 인재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투자에 있다. 엘리트교육이 그 근간을 이루며 가능성 있는 학생들은 중고교부터 관리하여 유수대학

진학시 유학기간의 전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귀국비행기표와 심지어는 이사비용까지 지불한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동정은 싱가포르 국영TV 주요뉴스에 시시콜콜 소개될 정도이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없을 수 없다. 최근 싱가포르 정치는 이전의 통제적인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또 싱가포르의 이콴유 전수상의 아들이자 차기 수상으로 확실시 되는 이셴룽이 전임각료의 뺨을 때렸다는 제목이 석간신문의 타이틀 기사로 난 것을 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자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60% 전후의 지지율로 의회의 전 의석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의 복잡한 선거제도는 야당의 발전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언론정책과 사회시민권리을 제약하고 있는 정부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통치방식은 싱가포르식 민주제도의 민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어떤 이는 경찰국가라고까지 혹평하기도 한다. 현재 인민행동당을 대체할 만한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정부의 자정노력과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싱가포르 국민은 아직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비판적인 시각은 싱가포르의 세계화에 대한 태도이다. 세계화의 한 단면은 인적자원의 교류라 할 수 있다. 최근 싱가포르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법을 완화하였고 고급인력의 싱가포르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대륙출신들이 이민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global)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국가적 노력이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외국기업이 국내 실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주는 교훈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세계화 노력은 선진국과의 관계이지 개도국과

의 관계는 아닌 듯하며 그 관계는 매우 차별적이고 배타적이다. 싱가포르 현지 TV에서 한 싱가포르 노동자가 베트남여자와 결혼했으나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부인이 싱가포르에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을 보도한 것을 기억한다.

지역학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필자는 중국을 연구하는 이로서 주로 중국관련 공부를 하여왔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면 중국이외에도 동남아연구, 특히 싱가포르연구의 의욕을 가져본다. 특정지역의 연구에 있어서 그 지역을 개별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기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보편성과 법칙성을 끌어내는 학문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인민행동당의 약 40년에 달하는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생존능력은 무엇인지, 가진 지하자원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가 생존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국가가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강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지, 작은 국가가 대개 가지는 단점중의 하나인 부족한 인재기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시기에 국내외 정치와 경제이익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는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비교연구의 재미와 의미를 줄 수 있다.

학문과 개인적 관심이 교차하는 곳, 싱가포르는 이번 학술회의의 손님접대에 한 치의 빈틈도 없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만난 여러 외국학자들과 새로운 교분을 나눈 것은 매우 유익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싱가포르에 대한 필자의 연구의욕과 열의를 발견한 것은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싱가포르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하며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과 동남아 현지의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지한 토론과 건설적인 조언을 기대해본다.